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선근

'97 각찬양대 여름수련회 열려

5월 28일(수), 호산나찬양대를 시작으로 8월 16일까지

찬양위원회(위원장 손동운 장로)에 서는 97년도 각 찬양대 및 연주대의 여름수련회 일정을 마련하고, 각찬양대별로 수련회를 갖기로 했다.

이미 지난 5월 28일에 호산나찬양대와 6월 6일에 실로암찬양대가 수련회를 마쳤다.

지난 5월 28일(수)에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자'는 주제로 호산나찬양대가 나사렛홀에서 박경한 목사님과 이승순 지휘자를 강사로 행해졌다. 삶이 곧 예배이고 항상 찬양의 삶을 살자는 박경한 목사의 메시지에 이어 이승순 지휘자의 간증 섞인 강의를 통해 참석한 대원들은 앞으로 겸손의 멜로디, 기쁨의 리듬, 감격의 화음이 울려 퍼지는 찬양대가 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97년도 찬양대수련회는 일곱 개 찬양대와 핸드벨, 크로마하프 연주대, 남성중창단 등으로 총 800여명의 대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각 찬양대의 수련회는 교회학교와 같이 교육부서가 아니고 연령층이 다양하게 모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인원들이 함께하고 있기에 교육적 필요가 있으면서도 이를 채우기가 어렵고 동질감을 갖기가 어렵다.

그러나 찬양이란 모두가 동일한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에 1년에 한 차례이지만 각 찬양대가 여름에 전 대원이 함께 수련회에 참여하

찬양대	날자	장소	강사	주제
가브리엘	8월 6일-8일	주문진 가족호텔	박경한, 김의철, 조신욱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자(시 18:7)
임마누엘	8월 14일-16일	청수연수원	김재철, 장기범, 김의주	내 삶을 찬양의 제사로(히 13:15)
할렐루야	8월 14일-15일	충현기도원	박경한, 김철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대가 되자(시 29:2)
아멘	8월 14일-16일	고양유스호스텔	전형준, 이수철	제사로서의 찬미(히 13:15)
시온	8월 14일-15일	구세군수양관	박경한, 이진우	기쁨으로 하나님되자
호산나	5월 28일	베다니홀	박경한, 이승순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자(시 28:7)
실로암	6월 6일	나사렛홀, 호산나홀	박경한, 강임구	자질을 갖춘 찬양대원(사 43:21)
크로마하프, 핸드벨	7월 3일	나사렛홀	박경한, 강호원	주께 찬양 드리세(시 150:1-6)
핸드벨	7월 31일-8월 1일	충현기도원	박경한, 송재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자(빌 2:5)
남성중창	8월 15일		박경한	

여 서로를 알고 익히고 이해하고 신앙적 교육과 또한 부족한 연습 시간에 할 수 없었던 음악적 기량을 닦을 수 있으므로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이다.

따라서 찬양대원들이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는 일이 거의 없는 일이기에 찬양대원들은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서로간에 이해를 새롭게 하는데 노력한다면 더할 나위없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 97년도 각 찬양대의 여름수련회 개요는 위의 표와 같다.

제직회로 모입니다

6월 22일(오늘)

4부예배 후 본당에서

충현기도원에서

6.25 구국 부흥사경회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강사에 김진택 목사



북한의 사정과 국내의 복잡한 정치 상황 등으로 한결 조심스러워진 이때에

충현기도원에서는 6.25 47주년을 맞으며 구국 부흥사경회를 오는 6월 23일(월) 저녁부터 27일(금) 새벽까지 실시한다.

47년 전 6.25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특별히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 부흥사경회를 개최한다.

강사는 총신대학원 강사인 김진택 목사(사진)이고 주제는 '승려하는 삶의 비결'이다. 부흥사경회는 새벽기도회, 낮공부, 저녁부흥회로 진행된다.

기도원에서 숙식을 하며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원 식당을 이용하여 매식(1식 2,000원)을 할 수 있다.

홀트 입양가족 모국방문단 12가정 41명이 충현교회 방문

민박을 도와줄 자원봉사자 필요해
7월 5~6일, 그리스도의 사랑 알릴 좋은 기회

홀트 입양 가족 모국방문단 12가정 41명(양부모 포함)이 오는 7월 5일(토) 충현교회를 방문한다. 이들은 입양 가족들에 모국을 방문하여 모국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해에도 우리 교회에서 방문단의 일부를 맡아 도왔다.

지난해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성도들은 그들과 함께 지내고 만나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다.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해주면 그들이 큰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기도 했다. 특별히 입양아들에게 한국인이란 긍지를 심어

주려고 애쓰는 양부모들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7월 5일(토) 오후에 홀트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된 입양아들과 양부모 41명에 다시 충현교회를 방문한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들의 외로움을 함께해 주고 위로해 줄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다.

자원봉사자가 할 일은 7월 5일(토) 제석식사와 잠자리 제공, 7월 6일(주일) 아침식사 제공이다. 7월 6일(주일) 아침식사 후 교회에 오면 선교위원회가 나머지 일정을 맡게 된다.

자원봉사 희망자는 영어예배부 김정순 집사(☎ 407-7330)나 선교위원회(☎ 552-8200, 교환 357) 앞으로 연락하면 된다.



제3기 주부교양강좌

가 시간에 갈수록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강의 장소인 봉사관 지하 2층이 강좌 때마다 가득차고 지난 주 황순관 교수의 강좌는 황 교수의 명성대로 봉사관 지하 3층에 비디오를 설치하고 강의들을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 특히 지난 주에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250여명이나 참석해서 처음에 계획했던 목표에 접근된 강좌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주유들에게 필요한 주제 선택, 이에 적절한 강사 선정 등이 효과를 본다고 할 수 있다.

금주 목요일(6월 26일)에는 마지막 강좌가 진행된다. 주제는 '21세기 여성상'으로 강사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두레마를 대표이며 남양만 활빈교회 담임목사인 김진홍 목사이다. 주회측에서는 강좌를 마무리하면서 참석자에게 특별선물도 준비하고 있다.

● 김창인 목사의 이사야서 강해 ●

하나님의 탄식

(이사야 1:21-23)

사람은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져야만 가치가 있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질 희망이 있어야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금년이 작년보다 못하고 내년이 금년보다 못해질 것이 내다보이는 사람은 버림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더욱이 신앙생활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신앙생활과 도덕생활이 점점 못해지는 것을 보시고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유다 백성이 전에는 어떠하였는데, 이제는 어떤 자리에 떨어졌는가를 공부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부디 이전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는 신앙세계에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 후퇴하는 백성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1) 전에는 신실하던 유다 백성이 이제는 창기가 되었습니다

① 전에는 신실하였었습니다.

'신실'이라는 말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에게 신용이 있다는 말입니다. 유다는 사람 앞에 신용을 잘 지키던 백성이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에게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잘 지키던 백성이었습니다. 셋째, 절개가 있다는 말입니다. 유다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절개가 있었던 백성이었습니다.

② 이제는 창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신용이 있었고, 하나님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육신의 생활과 신령한 생활에도 절개를 지키는 신실한 유다 백성이었던데 오늘은 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본문의 '창기'는 하나님과 아울러 우상도 섬기는 영적 창기를 말합니다. 예배당에 나오면 찬송하다가도 연말이나 정초가 되면 점쟁이 집에도 출입하면서 우상을 섬기니 영적 남편이 됩니다. 또한 유다 백성은 육체적으로도 절개를 지키지 않아 더러운 창기가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이 어찌하여 이런 창기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 버려서 그렇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다면 신앙의 절개를 지켰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줄 알았다면 육신의 절개도 지켰을 것인데 이것을 모르니 거짓말을 떠먹듯이 하고 망치하게 음란해졌습니다.

(2) 전에는 공평과 의리가 있던 유다 백성이 이제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① 전에는 공평하고 의리가 있었습니다.

'공평'이란 말은 하나님의 저울대에 달았을 때에 치우침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가. 무엇에 공평해야 합니까?

(가) 물질 거래에 공평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취급할 때에 양식과 법에 비추어 보고 또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 보아서 공평해야 합니다.

(나) 사건 처리에 공평해야 합니다.

사건 처리에 공평하려면 첫째, 욕심에 끌리지 않고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인정에 끌리지 않고 강직해야 합니다. 셋째, 세상에 눌리지 않고 공의가 서야 합니다. 넷째, 남의 말에 속지 않고 좌우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이 있어야 매사에 공평할 수 있습니다. 공평한 자는 반드시 의리가 있습니다.

② 이제는 살인자만 남았습니다.

전에는 유다 백성이 공평하고 의리를 따랐으나 지금은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살인자들만 남았다고 하니 얼마나 끔찍하게 타락한 것입니까.

'살인자'란 말은 사람의 생명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부자의 돈을 받아 먹고 약자를 밟아 버리는 것이 살인이요, 권세를 좋아하며 인간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공평이나 의리가 없어지고 살인자만 남았으니 유다가 전보다 못해졌습니다. 인간 생명의 가치를 귀중한 줄을 모르게 되었으니 이것이 이전만 못해진 선민의 안타까운 형편입니다.

2. 후퇴하는 종교 지도자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1) 전에는 은과 같은 종교 지도자의 인격이 이제는 찌꺼기 되었습니다

'은'은 백성의 종교 지도자를 비유한 것입니다.

진짜 은의 특성은 첫째, 은은 무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은과 같이 중량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 한 마디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무게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은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이 붙어도 은은 은대로 있지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은 무서운 환난을 만나도 신앙의 절개를 지킵니다.

그런데 지금 은과 같은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은이 찌꺼기 되었습니다. 찌꺼기는 삭아서 속이 비었기 때문에 무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보따리를 들어도 가볍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신앙생활과 도덕 생활이 점점 못해지는 것을 보시고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유다 백성이 전에는 어떠하였는데, 이제는 어떤 자리에 떨어졌는가를 공부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부디 이전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는 신앙세계에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종들의 인격이 은과 같아서 함부로 덤비지 않고 조심성이 있고 중량이 있어서 불 속에 들어가도 녹지 않았으나 이제는 찌꺼기 되어 불 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다 타서 없어질 정도입니다.

찌꺼기가 가볍듯이 하나님의 종이 약속을 하고도 '내가 언제 그랬나?' 하고 뻔뻔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의 말과 행동에 도무지 신뢰성이 없습니다. 교역자는 은과 같이 무게가 있어서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움직이지 않고 제 자리를 지켜야 하겠는데, 중량이 없으니 바람부는 대로 끌려다니니 얼마나 한심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찌꺼기 되어 가볍고 힘이 없어졌으니 한 톨의 가치도 없게 되었습니다.

(2) 전에는 포도주와 같은 교역자의 설교가 이제는 물이 섞였습니다

전에는 순수한 포도주같은 복음만 전하더니 이제는 물이 섞여서 그 순수성을 잃었습니다. 전에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더니 이제는 설교에 세상 지식을 섞어 시국강연을 하는지 더러운 것이 섞였습니다. 교역자의 설교가 전에만 못해진 것을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 제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였고, 예수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실 때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였고, 구약의 선지자들 전부가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설교를 들으면 '죄'나 '회개', '천국'이나 '지옥'이라는 말이 거의 없이 그저 슬슬 넘어가니 물이 섞였습니다. 성경 말씀보다는 어느 철학박사의 말과 어느 문학박사의 말을 섞어서 시국이 어떻고 이런 소리만 합니다. 그러나 물이 섞였습니다. 물이 섞였다는 말의 가장 무서운 의미는 세력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원컨대 충현교회는 물이 섞인 설교를 하는 교역자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3. 후퇴하는 집권자들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1) 집권자들이 패역해졌습니다

패역이란 알고도 거스린다는 매우 악독한 말입니다. 몰라서 실수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알면서도 다른 것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리로 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도리어 사는 길이라고 우기면서 가는 것이 패역입니다.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알고도 망할 것을 합니다. '패역'은 알고도 양심과 율 사람을 속이고 알고도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2) 패역한 집권자들의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도적과 짝하여 동업을 합니다. 짝패를 키워서 정치를 합니다. 뇌물을 사랑합니다. 사례물을 구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보다 지금이 못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무서운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만 속이면 뻔뻔스럽게도 넘어갈 줄 알았지,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가 기다리는 줄을 몰랐기 때문에 유다가 패역했습니다.

셋째, 개인의 가치와 생명의 가치를 잊었기 때문에 이전만 못해졌습니다. 사람의 생명 하나는 천하보다 귀한데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 지경으로 타락하였습니다.

Today's Message By Rev. Kim, Sung Kwan

김성관 목사의 금주 설교

SERVANTS OF CHRIST

(1 CORINTHIANS 4:1-15)

Let a man regard us in this manner, as servants of Christ and stewards of the mysteries of God" (vs. 1). This is the theme of today's message. Paul is saying that people who know or come to hear about us should clearly realize that we are Christians. Without exception, they should know that we work for Christ and are entrusted with the secret things of God. Our behavior and lifestyle must reflect the gospel message in order for others to perceive this power.

How do servants of Christ become good stewards? The key is found in the very next verse, "In this case, moreover, it is required of stewards that one be found trustworthy" (vs. 2). Trustworthy means faithful, reliable, dependable, and responsible. In other words, a good Christian steward is someone who is worthy of belief because of his/her faithfulness to Jesus Christ. This really means that we have to be straight forward, honest and sometimes hard with the people we come into contact with. We can't be scared of human beings. Our intention is not to please or displease another human being but to please our Lord and Savior. The bottom line is that we always remain trustworthy to Christ.

For Christ alone is the One we must answer to in the end. At the judgement seat of Christ, all motives will be revealed. God will then give praise to each believer according to his fruit. Until that time, it's important to keep in mind that only God knows the true contents of a man's heart. Therefore, we must take care not to pass judgement on others or ourselves. We must live faithfully according to the Scriptures and remember that everything we have is received from Christ.

With biting irony, Paul contrasts the imagined richness, fullness, and kingliness of the Corinthians lifestyle with the degradation and distress that were the apostles' daily life. "For, I think, God has exhibited us apostles last of all, as men condemned to death; because we have become a spectacle to the world, both to angels and to men" (vs. 9). Paul is saying that this world is a battlefield in which Christians are the prime target. The Bible pointedly reflects that if you're not a spectacle to the world then your position is not Christ centered. This is not a rosy picture of bliss that the Corinthians thought servants of Christ deserved. Quite the contrary, Paul's illustration of Christian servanthood demands the very opposite of the world's idea of success.

Paul's comparison of true Christians to those that think they are Christians is really strong. "We are fools for Christ's sake, but you are prudent in Christ; we are weak, but you are strong; you are distinguished, but we are without honor" (vs. 10). Here we see the picture of how the world views true servants of Christ. It isn't anything like the Corinthians arrogance. Sadly, we today have an abundance of professed Christian



그리스도의 종

(고전 4:1-15)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1절).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확실히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곧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라는 것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바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반드시 알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선한 청지기들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2절). 충성이란 곧 '신실하다', '믿을 만하다', '신용이 있다', 그리고 '책임감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의 선한 청지기는 곧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신실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자는 직선적이고, 정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색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로서, 우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곧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께 대하여 신실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달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대상은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마음의 숨은 동기들이 다 드러날 그대에 하나님께서는 각사람이 맺은 열매에 대하여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각자의 생각을 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또는 남들에게 대하여 쉽게 판단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살면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만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 추구하는 생활의 부유함, 만족함, 그리고 왕같은 신분과 사도들이 그들의 생활을 통해서 겪고 있는 천대받음과 고난을 대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마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9절). 바울은 이 세상은 전쟁터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최고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만일 당신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지 않고 있다면 당신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인들의 생각과 같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우리에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 낙관적인 천국의 모습에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의 삶은 세상에 성공이라고 여기는 것과는 정 반대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매우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되" (10절). 여기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보고 있는가에 대하여

preachers, teachers, scholars, and laymen who the world views as canny, financially successful and famous. Isn't it apparent that something is amiss? Shouldn't the world be viewing these servants of Christ as poor and disgraceful idiots instead of popular, wealthy, and honorable businessmen?

Paul continues his illustration of servants of Christ by stating, "To this present hour we are both hungry and thirsty, and are poorly clothed, and are roughly treated, and are homeless; and we toil, working with our own hands; when we are reviled, we bless; when we are persecuted we endure; when we are slandered, we try to conciliate; we have become as the scum of the world, the dregs of all things, even until now" (vss. 11-12). Paul and the apostles' lives were not comfortable. He mentions their dilemmas so that we really know what to expect in being servants of Christ, "I do not write these things to shame you, but to admonish you as my beloved children" (vs. 14). He warns us of the trials and tribulations that are necessary for us to endure so that we can persevere until the last time. He also gives us a clear image of the reception we can expect from the world and how we are to handle it.

Even though servants of Christ suffer trials and tribulations that are needed to reach the goal, they are truly nothing in comparison to the reward of eternal life in God's glory. If we keep our eyes focused and our hearts centered in Christ, His yoke becomes easy and His burden becomes light! Servants of Christ are not comfortable in this world but they are joyful in the hope of the world to come. They stand for Christ no matter what the cost because they know the priceless value of their faith. Servants of Christ live for Christ because He is the Lord of everything and everyone!

"For if you were to have countless tutors in Christ, yet you would not have many fathers, for in Christ Jesus I became your father through the gospel" (vs. 15). There are many people who know the Scriptures but few who live for them. Paul is telling us that there's a very distinct difference between having knowledge of Christ and knowing Christ. He highlights the spiritual transaction that occurs when a person proclaims the gospel moved by the necessity of an entrusted stewardship.

It's important for us all to remember, "You were bought with a price; do not become slaves of men" (1 Cor. 7:23). How many Christians have fallen into the world's glory of fame, fortune, and success? We must always remember that we are servants of Christ, not of men! Paul simply states, "I do all things for the sake of the gospel, so that I may become a fellow partaker of it" (1 Cor. 9:23). It is purely the gospel of Christ that contains all our treasures and therefore requires all our faith. We work for Christ so that Christ's workings will work for us.

I really want to be like Paul and emulate the out workings of his faith in Christ. We cannot make people understand the gospel. Our job is strictly to tell the truth of reality in Christ through the Holy Spirit. The difference between Christian love and the values of the world are most brilliantly evident when we live it. Even though our way of living may place us in destitute situations, I pray that we all keep running and running and running for the souls that need to be harvested - for the gospel that needs to be shared. Even if we are called to live like animals in the dirt, I want to be thankful and praise God for His amazing grace that allows me, a wretched sinner, to receive the gift of everlasting life in His presence. I want every person who meets me to know that I am a servant of Christ and a steward of God's mysteries.

보게 됩니다. 그것은 결코 고린도인들이 자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슬프게도, 오늘날의 설교자들, 교사들, 학자들과 평신도들 중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빈틈없고 경제적으로 성공적이며 유명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 확실히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세상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볼 때에 유명하거나, 부유하거나, 훌륭한 사업가로 보기보다는 가난하고, 불명예스러운 일간이들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에 대한 실례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같이 되었도다" (11-13절). 바울과 사도들의 삶은 편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들의 어려운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바로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14절). 그는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견딜 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인내해야만 하는 환난과 시련들에 대하여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대우를 받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명확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많은 환난과 시련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받을 영생의 상급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초점을 그리스도께 맞추고 주를 따르기만 한다면 주님의 명에는 지기가 쉽고 주님의 짐은 가벼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이 세상에서 편안하지는 않으나 다가올 세상에 대한 희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의 놀라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담대히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과 모든 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15절).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말씀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 사이에는 매우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고전 7:23)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명예, 부귀와 성공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들이고 사람들의 종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확고히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전 9:23)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모든 보배로운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믿음의 전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낼 것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제가 바울과 같이 되어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졌던 그의 믿음의 역사들을 본받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사람들이 복음을 믿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대로 살 때 기독교의 사랑과 세상의 가치들에 대한 차이점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인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 처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복음전파를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가 땅의 짐승처럼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저를 만나시는 모든 분들이 저를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알게 되실 것을 소원합니다. 아멘.



건전한 자아관

특히 청소년들을 위하여

최영찬

(목사, 9교구 지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1:27-28)

청소년 시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건전한 자아상을 형성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타인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공자도 50이 되어서야 자기를 알았다고 고백한 것을 보면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 수 있다. 자신을 수용한다는 일이 특히 아직 자신에 대한 바른 판단이 서 있지 않은 청소년 시기에는 더 어렵다.

우리를 판단하는 것 중에 가장 좋지 않은 태도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비교의식이다. 우리는 대부분 이것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있다.

“왜 내 얼굴은 이렇게 못생겼을까?”

“왜 내 키는 이렇게 작지?”

“왜 나는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우리가 일단 자신을 남과 비교하게 되면 자신에 대하여 빠르게 보지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열등감이 지나치면, “나는 이 세상에 쓸모 없는 존재”라는 지극히 부정적인 자아관을 갖게 된다.

비교의식은 또한 반대로 자신이 남보다 지나치게 뛰어나다는 우월의식을 갖게도 한다. 그리고 남들을 멸시하게 만든다. 남들과 비교해서 머리가 좋든지, 또는 외모가 아름다운 여학생들은 인기가 좋기 때문에, 자신은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다른 학생들을 멸시하는 태도를 갖게 되기가 쉽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교의식을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열등의식과 우월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게 되며, 자신과 남들에게도 이롭지 않은 자아관을 갖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자아관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자신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보는 눈을 기르는 것이다.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란 열등감이 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물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였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시 119:14)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깨닫고 찬양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짓기 전에 이미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모든 축복된 계획을 세워 놓으셨음을 깨달았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시119:16)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자신을 멸시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솜씨를 불평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자신만을 남보다 뛰어난 존재로 생각하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시고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묵상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우리가 전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보면, 자신이 얼마나 жал코듯같은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큰 불경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차우침이 없이, 자신의 부족함과 뛰어난을 동시에 볼 줄 알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볼 줄 알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장점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는 안목을 키우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장단점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잘되면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들의 장점을 인정해 주고, 단점은 자신이 가진 장점으로 도와 줄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모든 장단점을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눠 주신 하나님이며, 우리가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소년 시기에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시간을 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그 좋은 예를 유대인들의 교육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대인들의 교육은 우리와 많이 다르다. 그들은 학교에서 먼저 오전 전 시간을 율법과 말씀을 공부하고, 오후에 세상 공부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에 세상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다른 민족들보다 지식에 많이 뒤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다. 그 한 예가 바로 우리 나라 사람은 아직 한 사람도 받지 못한 노벨상의 1/3을 유대인들이 수상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세상을 바라보며, 먼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배우고 자신을 배우며,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자신의 뜻을 세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세상과 자

신과 인류의 의미에 대하여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청소년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인류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소년 시절에 자신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충분히 해야 한다.

우리가 청소년기에 이런 훈련을 잘 하면, 우월의식이나 열등의식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또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닐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소년 시기에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가야 하는 것

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건전한 자아상을 발견하고 이웃과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사랑하는 청소년들이여! 뜻을 세우고 하루에 세번씩 엎드려 하나님과 교제하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미래를 여러분들에게 맡겨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오른 손으로 붙드시고 이 세상을 비취는 등불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시 119:14)

※ 부서 탐방 / 유년부 ※

유년부 실정에 맞는 성경 중심의 교육 실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자’는 주제 아래 교육관 314호에 모여든 유년부 어린이들은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다.

임무천 장로를 부장으로 하여 염현 일 전도사의 지도를 받고 있는 유년부의 주일예배는 1, 2부로 나뉘어 드려지는데, 1부는 오전 8시 50분부터, 2부는 10시 50분부터 시작된다.

교사는 제적 75명 중 70명 정도가 매주 출석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전체 478명중 약 160명이 1부 예배에, 190여 명이 2부예배에 참석한다. 예배 중 축도 시간은 성봉환, 최영찬 목사가 1, 2부를 나누어 담당하고 있으며, 봉헌할 때는 어린 학생들이 헌금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많은 학생들이 예배 시작 후 들어 오거나 예배 후 늦게 들어온다는 점이다. 교사들은 학부형들에게 예배 시작 10분전에 모든 학생들이 나와서 찬양으로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을 바란다.

예배가 끝나면 새친구 환영과 생일 축하 및 100% 출석 반에 대한 시상이고, 등반하는 학생

들을 축하해 주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새로 온 친구는 신일반에서 4주동안 교육받은 후에 등반하게 된다. 또한 담임 교사와 함께 반별공부한 내용을 평가하기도 하는데 지난 15일에 실시한 학습 평가는 공과 교재 12-23과를 범위로 실시되었다.

97년의 유년부 교육계획은 최대한 일괄적인 흐름을 갖는 데 중점을 두고, 교회 지침과 그 맥락을 같이하여 유년부 실정에 맞고 실현 가능한 성경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유년부는 성경을 배우고 행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것이라는 교육 지침에 맞추어 어린이들의 성수주일과 성경 읽기, 기도훈련을 밑바탕으로 하여 신앙 교육을 새롭게 시도하고 있다.

(글/ 임필아가자, 사진/ 이운구 기자)



쓰레기 분리수거합시다

종이류 쓰레기는 교육관 비상계단쪽 쓰레기함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한 후 폐재는 점차로 자리잡아 나가고 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아직도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문제는 모두가 협력할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많은 쓰레기가 나오는 주일, 특히 교육관에서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 문제는 심각하다.

우선적으로 분리해야 할 쓰레기

는 재활용에 가능한 종이류 쓰레기를 구별하는 일이다.

새문국에서 특별히 마련한 종이류 쓰레기함을 교육관 각층 비상계단 쪽에 마련해 놓았다. 종이류 쓰레기는 반드시 지정된 함에 넣어 재활용에 가능토록 할 뿐만 아니라 쓰레기 양을 줄여서 비용도 절감되도록 해야 하겠다.

취재수첩

학부모 시청각교육 실시한 영아부

지난 주일 영아부에서는 아기들이 만지고, 보고 싶은 충동을 만족시키기 위해 학부모 시청각교육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 시간에는 박정숙 집사의 지도로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아이들이 동그랗게 모여 지점토로 꽃만들기를 하였다.



유아부 교사 연구수업

지난 6월 15일(주일) 유아부에서는 1부예배가 끝난 후 교사연구수업이 있었다.

이것은 두달 전부터 유아부내 모범적인 교사를 선정하여 그 교사가 다른 교사들 앞에서 실제의 반과 동일하게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실제의 반과 동일한 수의 몇몇 교사들이 아이들 역할을 해서 지도 교사가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는 방법이나 주의가 산만할 때 집중을 시키는 방법 등을 알아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때 수업한 내용이 그날 실제의 반들이 수업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참관한 교사들은 자신의 지도 방법과 직접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유능한 교사 위한 특강 - 유년부

유년부에서는 6월 15일 구명선 전도사를 강사로 '유능한 교사가 되려면' (요 6:39하)이라는 제목으로 교사 특강 시간을 마련했다.

이 시간에는 교육의 필요한 요소, 교사의 기본 자세, 교사의 실생활의 유의점, 효과적인 교육 방법에 대한 내용을 강의했다.



중등부 총동원주일, 새친구환영회도

중등1부는 지난 6월 15일(주일)을 총동원주일로 지켰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을 주님께 나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중등1부 아이들은 대신자

를 작성하고 기도로 준비해왔다.

이 날에는 1월부터 이날까지 온 새 친구들과 인도한 친구들이 모여 새 친구 환영회도 실시하였다.



새가족부 성경퀴즈대회

새가족부는 지난 6월 15일(주일) 성경 퀴즈 대회를 열었다. 질문과 답형식으로 된 성경 주제별 소책자를 미리 2주 전에 새가족부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쉽게 맞출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한다. 한 처씩 8차가 각각 모여 앉아서 각 처장이 질문을 하면 아는 사람이 손을 들어 표시하여 답을 말하였다. 한 사람이 5문제 맞추는 것을 최고로 하였기 때문에 한 사람이 5문제를 맞추면 다른 사람에게 먼저 기회를 주어 전체적으로 많이 맞추게 하였다.

▶ 유치부에서는 오는 29일을 초청 전도대회주일로 지킨다.

▶ 영어교육부에서는 영어로 성경을 지도할 교사들을 급히 찾고 있다. 믿음 안에서 학생들을 사랑하며 천국일꾼을 키우는 데 소명이 있는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선교위원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사역에 관심을 갖고 이들로 하여금 현재 우리 교회 2부예배에 참석케 하며 예배 후에는 선교관 301호에서 한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일들을 위하여 차량 봉사, 한글 교육, 식사 봉사, 물질 및 기도 후원으로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할 성도들의 헌신을 기다리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성도들을 선교 위원회로 연락하면 된다(선교관 406호, 교환 357).

한편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의 신앙 성숙을 위하여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에 설악산에서 수련회도 실시할 계획이다.

▶ 실업인전도회에서는 오는 6월 26일 오후 7시 베다니홀에서 월례회 및 총동원집회를 준비 중에 있다. 강사는 정광욱 목사이다. 회원들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성도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 11교구 남녀전도회가 지난 6월 19일(목) 합동으로 야외예배를 드렸다. 이 야외예배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눔으로 교구가 일체감을 이룰 수 있었다.

(글/백주영 기자, 사진/이은구 기자)

최근 새벽기도회 참석자가 증가함에 따라 교회는 새벽기도회 후 직장으로 직접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6월 23일(월)부터 만나홀(선교관 지하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기로 했다.

충현복지관

서울지역 정신지체인 줄다리기대회 우승 축구대회 3위 입상

지난 6월 10일(화) 한강시민공원에서 제1회 서울 지역 정신지체인 축구대회 및 줄다리기 대회가 열렸다. 이에 복지관에서 직업훈련생 67명을 포함하여 집단지도생 4명, 지도교사 12명, 자원봉사자 5명 등 총 88명이 참석하였다.

서울에 있는 장애인 관련 복지관과 정신지체인 관련 기관들(특수학교, 시설 포함)이 모두 참가하여 한강이 바라 보이는 고수부지 운동장에서 열린 축구경기와 줄다리기 시합이 펼쳐졌다.

축구경기에서는 전체 3위를 차지하였는데 그동안 담은 기쁨을 모처럼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줄다리기는 올해 처음 시행된 시범종목으로 우리 복지관이 종합 우승을 차지하였다.

줄다리기에는 참여한 30명의 훈련생과 2명의 교사가 모두 하나되어 온 힘을 다해 줄을 당겼고 옆에서는 일렬로 나란히 선 치어걸(?)들이 꽃술을 흔들며 목청이 터지도록 응원을 하였다.

줄다리기의 합성소리와 응원소리가 초여름의 무더위를 녹일 듯이 온 경기장에 울려 퍼졌고, 줄다리기란 경기 자체가 그 어떤 운동보다 협동심을 요구하는 경기이기에 우승의 기쁨은 훨씬 더했다. 날씨가 무척이나 더워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새까맣게 탔지만 하나된 승리의 기쁨으로 모두들 환하게 웃는 얼굴들이었다.

또한 6월 12일(목)에는 서울특별시 시립 정신지체인복지관에서 열린 제11회 정신지체인 사생대회에 복지관 직업훈련생 64명과 집단 지도생 5명이 참가하여 좋은 결과를 거두었다.

푸르른 자연 속에서 모두들 열심히 그림을 그려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2명, 입선 6명 등 모두 10명이 수상하는 기쁨을 가졌다.

이 날 시상식장에 전시된 정신지체인들의 수상작품을 보면서 그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잠재능력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으며, 정신지체인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좀더 많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행사들에 대해 좀 더 많은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진다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을 것이다.



단기선교를 위한 물품 수집

선교위원회에서는 7월과 8월에 실시하는 단기선교에서 사용될 물품의 기증을 받습니다. 보내는 선교차원에서 성도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바랍니다.

1. 품목 /

- ① 의약품 : 구충제, 비타민, 항생제, 해열진통제, 예비오제, 피부과 각종 연고
- ② 의류 : 사계절 성인, 유아의류
- ③ 여행용 대형 가방
- ④ 기타 생활필수품

2. 접수 /

- ① 기간 : 7월 27일까지
- ② 장소 : 선교위원회 사무실(선교관 406호)

충현복지관 생활지도교사 모집

1. 생활지도교사 자격

- ①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동거가 가능한 자
- ② 정신지체인 지역사회 생활을 이해하고 가사 처리 능력이 있으며 수용적인 태도와 건전한 사고를 가진 자
- ③ 초대졸 이상 40세 미만인 여성

2. 서류접수

- ① 기간 : 7월 7일까지
- ② 장소 : 충현복지관 총무과
- ③ 전화 : 564-4885, 562-0548

3. 제출서류

- ① 이력서 1매
- ② 졸업증명서 1매
- ③ 자기소개서 1매

제작사진첩을 만듭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설립 마흔다섯 돌이 되는 1998년에 새로운 제작사진첩을 펴내려고 합니다. 제작개시는 '주보'와 '주간충현'의 교회소식란을 잘 보시고 단정한 차림으로 제 날짜에 찍으셔서 보다 알찬 사진첩을 만들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찍는 곳 / 홍보실(선교관 408호)

· 찍는 때 / 1997. 6. 22-12. 31

주일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30분

수요일 낮 12시 30분-오후 7시

금요일 오후 6시-7시 30분

· 찍는 교구 / 1997. 6. 22 : 1교구

1997. 6. 29 : 2교구

· 찍을 사람 / 원로, 은퇴, 직무장로 / 교역자 / 은퇴집사, 안수집사 /

원로, 은퇴, 세무권자 / 남녀 세례집사